

글과 사진. 박관호 결핵퇴치운동본부

세계, 결핵을 이야기한다

10월 25일, 새벽 5시 10분. 캄캄한 도로 위에서 새벽 공기가 코끝에 다가와 내려 앉았습니다. 지난 주말, 길을 걷다가 보았던 가로수들의 붉게 물든 단풍과 집 앞 은행나무를 흔들며 떨어진 은행을 줍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벌써 가을이구나' 생각했는데 이미 겨울이 가까웠나 봅니다.

필자는 지금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42차 Union 세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모르던 낯선 것들을 머리로 온 몸으로 배우고 받아들여, 다시 돌아오는 길에는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더 넓어진 시야와 자신감으로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제가 되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국

출발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의 귀빈실에서는 STOP-TB 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숙미 국회의원과 문영목 대한결핵협회장, 이준근 사무총장이 함께 탑승 시각을 기다리며 심각해져 가는 결핵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과 대한결핵협



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게 비행을 시작한 항공기는 이번 세계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일행들과, 업무로 여행으로 또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승객들을 싣고 11시간 가까운 거리의 하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플랑드르의 중심, 릴(Lille)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해 TGV 열차를 타고 북쪽으로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 곳. 바로 이번 Union 세계회의가 개최되는 도시, 릴입니다. 릴은 파리와 런던, 브뤼셀을 잇는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였으며 일찍이 산업화의 영향으로 번성하였으나, 이후 도시경계가 쇠퇴하고 침체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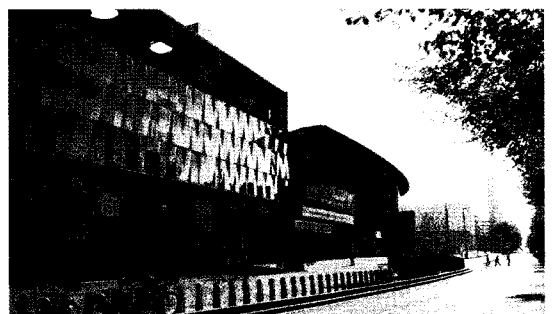
만 도시를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노력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일행이 조금 전 열차에서 내린 유라릴(Eura Lille)역입니다. 유라릴은 유럽의 여러 지역을 열차로 잇는 중추신경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쇼핑센터와 비즈니스센터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까지 갖춘 복합시설로 쓰러져가던 릴에 활기를 불어넣은,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릴에는 두 개의 역이 있는데, 신역사인 유라릴과 구역사인 플라드르(영어로는 플라더스)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는 전혀 다른 모습의 두 역은 릴이라는 도시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릴 그랑 팔레(Lille Grand Palais)

이곳 릴의 하루해는 한국보다 짧습니다. 여덟시가 조금 넘어 숙소를 나서니 이제 막 먼 하늘에서 동이 터오며 땅거미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새벽 냄새 나는 낯선 거리를 걸어 회의장으로 향합니다.

5일 간, 세계의 결핵 전문가들이 결핵에 관한 기술적, 학술적, 사회적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제42차 Union 세계회의가 개최되는 장소는 유라릴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릴 그랑 팔레입니다. 회의, 전시,

공연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이 커다란 건물을 향해 회의에 참석하려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 로비를 지나면 회의 참석을 위한 등록을 돕는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현장 등록을 하거나 사전 등록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회의 기간 동안의 여러 세션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같은 층에 위치한 커다란 중앙 홀의 전시 공간에서는 여러 단체와 기업들이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그들의 활동과 프로그램, 의료가 기 등을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축구공을 진열해둔 부스가 보



입니다. 결핵과 축구공? 축구를 좋아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축구공처럼 결핵을 뺀 차버리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해 나가길 바라는 참 멋진 아이디어였습니다.

많은 홍보부스들 사이에서도 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머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Stop TB Partnership의 부스입니다. 쟁겨간 STOP-TB Partnership KOREA의 홍보책자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두고, 파트너십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몇몇 사람들에게 다가가 한번 읽어볼 것을 권유했더니 케냐에서 왔다는 한 분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파트너십(Partnership)

한 시간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진행되었지만, STOP-TB Partnership KOREA의 협력위원장 손숙미 국회의원과 WHO Stop-TB Partnership의 사무국장 Lucica Ditiu가 한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자리를 갖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서는 우리나라의 STOP-TB 파트너십이 생겨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다른 나라의 파트너십들이 하나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계회의의 슬로건은 “Partnerships for

scaling-up and care(관리와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세계적으로 결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결핵퇴치를 위해 필요한 이상적인 수준에는 현저하게 못 미치고 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파트너십을 통한 상호협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나 개별 단체들이 단독으로는 해내지 못했을 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파트너십의 노력으로 해결된 사례를 보고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결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탄탄하고 활발한 파트너십을 갖춰야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결핵과 BCG

회의장을 빠져 나와 길을 걷다 보면, 갈매 박사 도로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 표지판을 따라 걷다 보면 나오는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갈매 박사가 처음 BCG(결핵예방백신)를 발견하였습니다. BCG의 'C'는 갈매의 이니셜. BCG의 발견은 결핵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현재까지도 유일한 결핵예방백신입니다.



상

Union 세계회의 일정의 마지막 날인 30일, Union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총회가 열릴 회의장 입구에서는 올해의 크리스마스 썰 콘테스트를 위한 투표가 한창입니다. 필자는 당당하게 한국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용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크리스마스 썰 사이에 우리의 뽀통령님이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왠지 이번 콘테스트에서 상을 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3위, 터키가 발

표됩니다. 이어, 생각할 틈도 없이 사회자가 2위 한국을 발표합니다. Union의 부회장인 Dr. Dean Schraufnagel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를 이용해 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면 매우 멋진 일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썰을 축하했습니다. 세계 크리스마스 썰 콘테스트에서 2위를 수상한 대한결핵협회의 썰이 자랑스럽습니다.

귀국

항공기에 몸을 싣고 뒤척이며 있는 지금의 필자는,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 새벽 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지난 25일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잠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릴에서 보낸 7일 간의 시간은, 앞으로 제가 맡은 일을 해나가는 데에 질 좋은 영양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계회의에 참석하면서, 맡은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봐왔던 것 보다, 세계는 결핵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핵 퇴치를 위해 애쓰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조직과 단체들의 노력들이 빛을 발해 결핵 없는 세상이 더욱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STOP-TB Partnership이 큰 힘을 보탤 수 있길 기대합니다.‡